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제 연 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심 은 정[†]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2/30대 남성 392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 우울 척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남성 성역할갈등은 높은 수준의 우울,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낮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검증한 결과,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남성 성역할갈등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성역할갈등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추구와 관련된 남성의 부정적 인식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남성 성역할갈등, 우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 본 연구는 제연화(2014)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심은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Tel : 051-510-2159, Fax : 051-581-1457, E-mail : angelasej@pusan.ac.kr

성역할(Gender role)은 바람직한 남성/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내면화된 사회적 행동양식으로(O'Neil, 1981), 자신의 성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 태도, 가치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 O'Neil(1981)은 성역할갈등을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하고, 개인적 성공, 타인에 대한 통제나 권력을 강조하는 것, 자신의 감정 노출과 타인의 감정 표현에 대한 불편함, 남성 간 애정 표현에 대한 불편함, 일이나 학업 및 가족과의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관련된 고통 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서구적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이 증대되어 가고 있지만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인해 뚜렷하게 구분된 성역할을 규정하고 있고(김태연, 1991), 이와 더불어 한국 남성들은 남성의 우월성, 체면과 지위의 중시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며(박수애, 조은경, 2002) 과묵함과 감정표현의 절제를 바람직한 남성의 모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편 청년기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고 성역할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면서,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이다(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윤진(1985)이 한국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한 생애단계에 따르면, 청년후기(19-25세)와 성인전기(25-35세)의 남성들은 성역할가치관 재확립(곽삼근 등, 2005)의 과정에서 남성 성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대학 혹은 직장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증대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이렇듯 성역할갈등이 심각한 경우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한다. 실제 성역할갈등은 낮은 자존감, 우울 및 불안, 전반적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적개심 및 대인관계 문제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urnoyer & Mahalik, 1995; Nguyen, Liu, Hernandez, & Stinson, 2012; O'Neil, 2008). 또한 성역할 및 성역할갈등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 결과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교차된 성역할(cross-gender role), 즉 반대성과 관련된 성격 특질은 자살 증상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성역할은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보다 자살 증상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tzpatrick, Euton, Jones, & Schmidt, 2005).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gender-role nonconformity)은 자살 경향성과 관계가 있었고(Friedman, Koeske, Silvestre, Korr, & Sites, 2006), 전통적인 성역할은 자살과 정적상관이 있었다(Hunt, Sweeting, Keoghan, & Platt, 2006).

한편 남성 성역할갈등과 관련 있는 정서적 문제 중 우울은 자살과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2/30대 남성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이 20대 20.9%, 30대 36.4%로 여성의 14.8%, 20%에 비해 높다(통계청, 2014). 우울은 자살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고 실제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20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자살을 설명하는 변인 중 우울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심리적 부검연구에서 자살자의 우울장애 비율은 통제 집단에 비해 7.65배 높았다(서중환, 이창환, 김경일, 김성혜, 2012).

선행 연구는 일관되게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김지현, 최희철, 2007;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박수애, 조은경, 2002;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예를 들어, 40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 성역할에 대한 태도,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Good과 Mintz(1990)의 연구에서 성역할갈등의 네 요인 모두 우울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Shepard(2002)의 연구에서도 남성 성역할갈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정서표현억제(Restricted Emotionality: RE)는 우울과 관련이 있었으며, Good과 Wood(1995)의 연구에서 성취 관련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증 변량의 21%를 예측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는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시사하나, 남성 성역할갈등이 우울로 이어지는 기제에 대해선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선행 연구는 자아존중감, 기본적 욕구 충족,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요인들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김지현과 최희철(2007)의 연구에서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매개한 간접효과도 나타내었다. 또한 Wester, Kuo와 Vogel(2006)의 연구에서 남성 성역할갈등의 정서표현억제(RE) 요인은 회피적 대처와 관련이 있었고 이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졌다. 관련하여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최희철과 김지현(2009)의 연구에서 감정의 억제는 자기은폐를 예측했고, 이것이 우울과 관련되어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밝혀냈다. 그리고 심한 성역할갈등은 기본욕구의 충족 수준을 낮추고 이것이 우울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최희철 등, 2009에서 재인용).

한편 성역할과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초기 연구는 전통적 성역할관을 지닌 남성은 상담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다(Good & Mintz, 1990; Good & Wood, 1995). 정서표현기피 성향과 정서 소통의 어려움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면서, 남자대학생에게 정서표현억제(RE)는 낮은 심리적 서비스의 활용과 연합하여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Good & Mintz, 1990). 더불어 선행 연구는 도움추구 행동에서의 성차를 일관되게 보고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도움추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도움추구 태도에서 부정적이었으며 실제로 도움을 추구하는 비율이 낮았다(유성경, 2005; 이동혁, 유성경, 2000; Komiya, Good, & Sherrod, 2000; Oliver, Pearson, Coe, & Gunnell, 2005).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되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도움추구 태도를 보였고, 상담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남성의 낮은 상담 비율과 도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특히 정서적 문제와 우울증상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도움추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정서적 표현의 억제가 우울증상 지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Möller-Leimkühler, 2002). 이처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행동에서의 성차는 일정 부분 성역할과 관련이 있고, McCarthy와 Holliday(2004)는 성역할은 남성의 도움추구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남성 성역할갈등은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 경향성을 더욱 낮게 만드는데, 선행 연구는 전문적 도움

추구와의 부적 관계 경향성을 보고한다(Good & Wood, 1995; Möller-Leimkühler, 2003). Good과 Wood(1995)의 연구에서 정서표현억제(RE) 등 억제 관련 성역할갈등이 도움추구 태도의 25%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성역할갈등과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남성은 심리적 도움추구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Berger, Levant, McMillan, Kelleher, & Sellers, 2005), 높은 성역할갈등을 지닌 남성은 상담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덜 긍정적이며 상담을 받으려는 의지 또한 약했다(Vogel & Pederson, 2007). Blazina와 Watkins(199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갈등이 심리적 안녕감과 약물 사용 및 심리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억제(RE)는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와 도움추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Tsan, Day, Schwartz와 Kimbrel(2011)도 높은 정서표현억제(RE)를 지닌 대학생들은 심리적 도움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더불어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시기에 적응적인 대처 행동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trona & Russell, 1987; Wester, Christianson, Vogel, & Wei, 2007에서 재인용). 선행 연구는 사회적 지지에서의 일부 성차를 보고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서적 지지를 구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남성은 도구적 지지에 비해 정서적 지지를 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Ashton & Fuehrer, 1993). 그리고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를 지지하는 남성들은 낮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보고하였다(Hill & Donatelle, 2005).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갈등과 도움추구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Osborne(2004: Wester et al., 200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지각은 상황적 디스트레스 및 취약성의 수용과 더불어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9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Wester et al., 2007) 사회적 지지가 성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정서표현억제(RE)와 남성과의 애정억제(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ABBM)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정서표현억제와 남성과의 애정억제 요인에서 점수를 받은 남성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했고, 이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증가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된 사회적 지지는 도움추구 태도나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조망은 심리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 믿음과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관련이 있었다(Tata & Leong, 1994: 신연희, 안현의, 2005에서 재인용). 그리고 Vogel과 Wei(2005)는 적은 사회적 지지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을 찾을 확률이 낮았고,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결정은 그들이 문제가 있고 그들 스스로 혹은 그들과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또한 도움추구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수혜된 지지의 강력한 예측인자였다(Kaniasty & Norris,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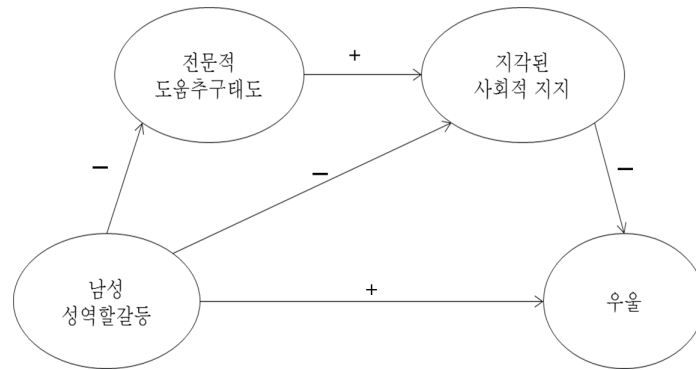


그림 1. 남성성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

상기한 것처럼 선행 연구는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시사하지만,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서도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림 1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편의표집절차를 사용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한 총 401명의 자료 중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39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세($SD=2.84$)였으며, 20-24세는 291명(74.2%), 25-29세는 84명(21.4%), 30-34세는 17

명(4.3%)이었다. 집단별로는 대학생 293명(74.4%), 직장인(대학원생 포함) 40명(10.2%), 군인 50명(12.8%), 무직 9명(2.3%)이었다.

측정도구

남성 성역할갈등

남성 성역할갈등은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가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로 평가했다. 이 척도는 O'Neil, Helms, Gable, David와 Wrightsman(1986)가 개발한 성역할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37문항, Eisler와 Skidmore(1987)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 1987) 40문항, 그리고 외국 척도들을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2003), 윤진, 최정훈, 김영미(1989)가 번안하거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의 문항과 일반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 등을 활용하여 개발 및 타당화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37문항의 6개 하위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60 이상이었으며, 6개 하위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60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 별 고유값과

설명변량은 남성우월(10.46; 2.83), 일·가정양립갈등(3.33; .90), 정서표현억제(2.85; .77), 성공/권력/경쟁(2.37; .64),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1.78; .48), 가정의무감(1.47; .40)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는 6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6개 하위요인은 남성우월(Male Superiority), 일·가정양립갈등(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s), 정서표현억제(Restrictive Emotionality), 성공/힘/경쟁(Success/Power/Competition),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가정의무감(Family Head Responsibility)이다. 이 중 4개 요인은 O'Neil 등(1986)의 성역할갈등 척도와 공통되며, 가정의무감과 남성우월의 두 개 요인은 한국형에서 나타난 고유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며, 하위요인 별로는 남성우월(.85), 일·가정양립갈등(.76), 정서표현억제(.79), 성공/힘/경쟁(.78),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74), 가정의무감(.76)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Cutrona와 Russell (1987)이 사회적 지지망의 질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고 유영란(2005)이 변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Provision Scale: SPS)를 통해 평가하였다. 총 24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역채점 문항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내 문제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도움

이 필요할 때, 도움을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등이 있다. 유영란(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Scale: ATSPPH-S)로 평가하였다. 총 29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낙인에 대한 내인성,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는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유성경(2005)의 연구에서 4요인 구조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일관되게 낮은 내적 합치도를 보고했다. 특히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문제에 대한 개방성의 하위척도가 낮게 산출된다고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전문가신뢰/필요성인식, 낙인수용성/개방성의 2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29개의 문항 중 .30 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5번(.17), 9번(.29), 13번(.12), 22번(.10), 24번(.19) 문항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66으로 나타났으며,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하위요인 별로는 전문가신뢰/필요성인식

(.82), 낙인수용성/개방성(.86)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수도권과 지방대학생 594명과 성인 28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CES-D는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일반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총 20 문항으로 우울정서 7문항, 긍정정서 4문항, 대인관계 문제 7문항, 신체적 저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0점(극히 드물게, 1일 이하)에서 3점(거의 대부분, 5~7일) 척도로 평정하며, 긍정정서는 역채점하여 합산하며 0~60점까지의 총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유의미한 우울증상 점수의 절단값은 16점이며, 16점 이상은 경도의 우울증상을 나타내며 25점 이상인 경우 약물치료 및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 수준의 주요우울증상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8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남성 성역할갈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합도지수인 χ^2 검증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최악의 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상대적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을 통해 알아보았다. CFI와 TLI 지수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 지수는 <.05는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리고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남성 성역할갈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남성 성역할갈등,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성 성역할갈등의 하위요인과 우울의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 = .193 \sim .459, p < .01$)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전문가신뢰/필요성인식 간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r = -.113 \sim -.561, p < .05$)을 나타냈다. 이는 남성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이 높은 수준의 성역할갈등을 겪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고,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N= 39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남성 성격함합도																
1. 남성우월	1															
2. 임·가정 양립 갈등	.331**	1														
3. 가정의 부담	.214**	.372**	1													
4. 경제표현역	.341**	.362**	.167**	1												
5. 남성의외 여성표현역	.493**	.311**	.186**	.445**	1											
6. 성취/임/정기	.391**	.327**	.325**	.174**	.199**	1										
전문적 도용후구 태도																
7. 전문가진뢰/필요정인지	-.300**	-.063	-.113	-.154*	-.190**	-.160**	1									
8. 낙인수용성/개방성	-.361**	-.336**	-.161**	-.466**	-.477**	-.360**	.302**	1								
지각된 사회적 지지																
9. 지각된 사회적 지지 1	-.411**	-.208**	-.057	-.488**	-.337**	-.111**	.224**	.299**	1							
10. 지각된 사회적 지지 2	-.380**	-.216**	-.014	-.450**	-.467**	-.094	.184**	.319**	.838**	1						
11. 지각된 사회적 지지 3	-.323**	-.213**	-.040	-.470**	-.441**	-.136**	.214**	.330**	.788**	.770**	1					
12. 지각된 사회적 지지 4	-.378**	-.205**	.003	-.470**	-.442**	-.129**	.231**	.371**	.792**	.766**	.791**	1				
13. 지각된 사회적 지지 5	-.345**	-.225**	-.028	-.515**	-.413**	-.058	.162**	.330**	.775**	.745**	.797**	.828**	1			
우울																
14. 우울정서	.254**	.377**	.209***	.355**	.369**	.219**	-.128*	-.391**	-.264**	-.489**	-.461**	-.506**	-.518**	1		
15. 대인관계	.256**	.423**	.183***	.479**	.344**	.215**	-.169**	-.483**	-.239**	-.467**	-.460**	-.503**	-.483**	.825**	1	
16. 신뢰저하	.344**	.356**	.215***	.318**	.319**	.195**	-.122*	-.327**	-.217**	-.475**	-.418**	-.421**	-.358**	.746**	.660**	1
M(SD)	2.61(1.0)	3.31(1.0)	3.41(1.0)	3.21(1.0)	3.70(1.0)	2.20(1.0)	2.70(1.0)	3.00(1.0)	3.20(1.0)	2.80(1.0)	2.90(1.0)	3.40(1.0)	3.40(1.0)	0.60(1.0)	0.80(1.0)	1.30(1.0)
왜도	.655	.185	.148	.146	-.175	.703	-.381	-.402	-.935	-.379	-.306	-.313	-.221	1.192	-.031	1.568
첨도	.303	-.327	-.604	-.402	-.226	-.226	.894	.233	.466	.272	.387	.336	-.085	.683	-.203	2.140

주. 남성 성격함합도: 1-6점; 전문적 도용후구 태도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 1-4점, 우울: 0-3점
* p < .05, ** p < .01

적 지지의 경우, 남성 성역할갈등의 가장의무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외 일부 요인을 제외한 5개의 하위요인들 간은 유의한 부적 상관($r = -.129 \sim -.537, p < .05$)을 나타냈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r = .163 \sim .599, p < .01$)을 갖는 반면,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r = -.122 \sim -.433, p < .01$)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r = -.398 \sim -.564, p < .01$)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남성 성역할갈등은 원래 6개 하위요인으로, 우울은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 요인이 잠재요인에 묶이지 않아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경우 전문가신뢰/필요성인식, 낙인수용성/개방성을 각각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묶여 총 2요인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으며, .30 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5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단일요인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위반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므로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1개로 요인을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짝을 지었다. 이 때 모든 꾸러미들이 비슷한 부하

량을 지녀야 한다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5개 측정변인이 구성되었다.

모든 측정변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측정변인들의 단변량 왜도(skewness)와 단변량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표 1). Finch와 West(1997)에 따르면, 각 측정변인 별 단변량 정규성에 대한 검토에서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2과 7을 넘지 않아야 하며, Lei와 Lomax(2005)가 주장한 왜도와 첨도의 기준인 $-2.0 \sim 3.5$ 를 넘지 않아 각 측정변인들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TLI 지수와 CFI 지수가 .90 이상으로 적합한 지수라고 볼 수 있으며, RMSEA 지수도 $< .08$ 으로 괜찮은 적합도로 볼 수 있어 측정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요인값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남성 성역할갈등의 측정변인들은 .30 ~ .71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우울은 각각 .47 ~ .53, .86 ~ .92, .79 ~ .95의 요인부하량이 나타났다.

남성 성역할갈등,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한 결과, 그림 3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하나 이상의 모형이 경험적인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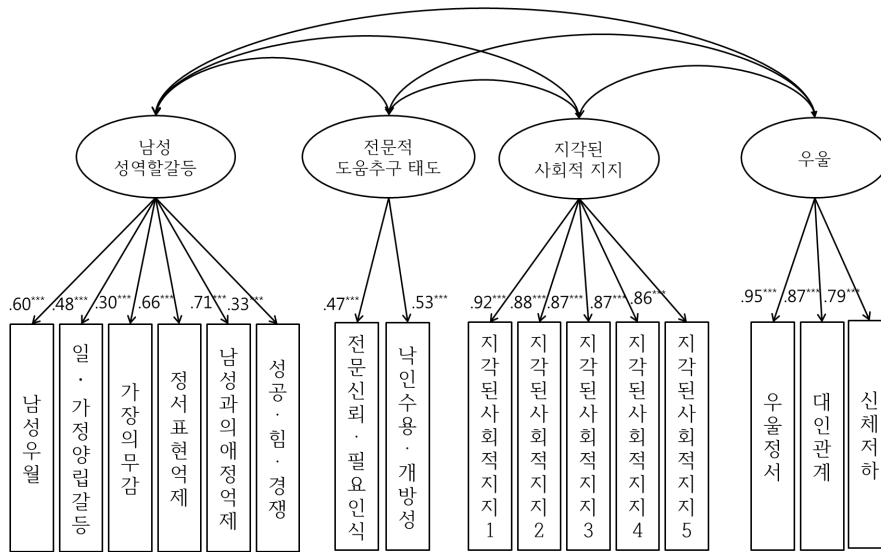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90% CI)
측정모형	216.243	90	.958	.968	.060[.049-.070]

증하는 것이 중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안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남성 성역할갈등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우울)을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89) = 237.588$; TLI = .949, CFI = .963, RMSEA = .065로 대안모형의 적합도 $\chi^2(91) = 290.341$; TLI = .934, CFI = .950, RMSEA = .075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연구모형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분매개모형은 완전매개모형에 포함되는 포함관계(nest-nested model comparison)이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elta\chi^2 = 52.753(\Delta df = 2, p < .05)$ 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므로 두 모형 간 적합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자료를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적합도 지수와 χ^2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beta = .26, p < .01$), 전문적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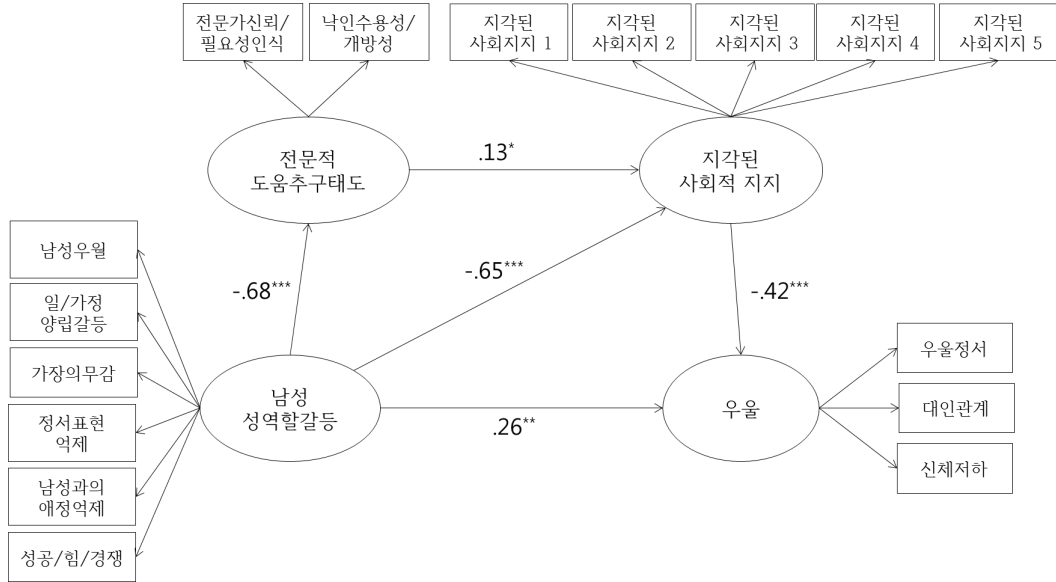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로계수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237.588	89	.949	.963	.065 [.055-.075]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	290.341	91	.934	.950	.075 [.065-.085]

표 4. 최종모형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남성 성역할갈등 → 우울	.233	.260	.076	3.089**
남성 성역할갈등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326	-.667	.062	-5.265***
남성 성역할갈등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06	-.652	.042	-7.35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지각된 사회적 지지	.121	.126	.058	2.077*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우울	-.809	-.424	.149	-5.439***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최종모형의 효과 분해표

경로	B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남성 성역할갈등 → 우울	.513	.233	.280
남성 성역할갈등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326	-.326	.000
남성 성역할갈등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46	-.310	-.016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우울	-.098	.000	-.098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지각된 사회적 지지	.121	.121	.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우울	-.809	-.809	.000

추구 태도($\beta = -.67, p < .001$)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beta = -.65, p < .001$)에는 상당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의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이행되는 경로계수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13, p < .05$),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우울로 이행되는 경로계수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2, p < .001$). 이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변인들 간의 전체효과 및 직접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통해 최종모형의 변인 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각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각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성역할갈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표 6.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남성 성역할갈등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우울	.140	.027	.093	.200
남성 성역할갈등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우울	.074	.016	.047	.112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효과크기는 표준화된 자료임.

한 남성 성역할갈등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김지현, 최희철, 2007; 김지현 등, 2005; 박수애, 조은경, 2002; 최희철 등, 2009; 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어 2/30대 남성이 성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이 높아질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Pleck(1981)은 남성은 자신의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내면화된 성역할과 관련된 특성으로 인해라도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남성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은 정서표현에 대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감정의 억압 및 자기방어 등의 기제는 우울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113명의 멕시코계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남성우월주의(machismo)와 정서표현억제(RE)는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Fragoso & Kashubeck, 2000). 그리고 선행 연구는 남성 성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억제(RE)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RABBM)가 회피적 대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서표현억제(RE)는 회피적 대처를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데,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이 대안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식 선택을 제한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Wester et al., 2006). 또한 높은 수준의 남성 성역할갈등, 특히 정서표현억제 성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태도 및 자신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Nguyen et al., 2012).

둘째, 남성 성역할갈등은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낮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 선행 연구는 성역할갈등의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억제 성향이 도움추구 태도의 25%를 예측했으며(Good & Wood, 1995),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관 및 높은 성역할갈등이 심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며(Berger et al., 2005),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은 남성은 상담 요청에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한다(Vogel & Pederson, 2007). 3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도움에 대한 태도의 예측인자인 남성(gender), 낙인 지각, 정서에 대한 불편감과 낮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심리적 도움추구에 대한 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Komiya, Good, & Sherrod, 2000).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역할을 시사한다(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지니게 되어 결국 도움추구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민지, 손은정, 2007).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갈등과 상담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역할갈등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낙인 및 자기낙인 지각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낙인에 대한 지각은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상담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매개를 통해 결국은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상담의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 스스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도움을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로도 자신의 남성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도움요청에 부정적이 되고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된다(Vogel, Wester, & Larson, 2007).

그리고 남성 성역할갈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부적 관계 양상을 보여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나친 성역할의 준수는 친구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윤진 등, 1989), 이로 인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선희(1995)의 성역할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성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더 많은 지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 남성성의 개념은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을 측정하는 것이

며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과는 다른 차원이므로(Sharpe & Heppner, 1991) 본 연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Möller-Leimkühler(2003)의 연구에서 남성성은 정서적 비표현성과 도움을 찾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제안했는데, 전반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지 지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남성 성역할갈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성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우울 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성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함을 확인한 Wester 등(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되는데, 이 연구에서 높은 정서표현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성향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연관이 있었고 이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선행 연구는(Nguyen et al., 2012; Wong & Rocheln, 2009) 정서표현억제 성향과 대인관계에서의 표현성과의 관계성을 시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타인에게 이를 잘 표현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정서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는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과 우울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박은옥, 2011; Wester et al., 200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박은옥(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남성 우울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인구 사회적인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은 32.8%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사회적 지지가 추가되었을 때 우울에 대한 설명량이 17.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우울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며,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낮은 사회적 지지 지각으로 이어져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제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고 감정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과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공적인 남성이 바람직한 남성상으로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문제로 인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성역할갈등을 지닌 이들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에서 자아존중감(김지현, 최희철, 2007)과 기본적 욕구 충족(최희철 등, 2009; 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등의 매개요인의 역할은 검증되었으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여 성역할갈등이 우울로 이어지는 한 가지 기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형적인 남성 성역할에 대한 경직된 관점은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도움추구 등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지지를 받게 어렵게 만들어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30대 남성의 우울을 다루는 상담 개입에서 남성의 전형적인 성역할의 일부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ahalik과 Cournoyer(2000)는 내담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성-관련(gender related) 인지적 왜곡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지적 왜곡을 반증하는 증거를 찾고 비논리성을 보도록 돕는 인지적 개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자기낙인을 줄이고 예견된 이득에 초점을 둔 개입을 권고하면서 심리적 서비스의 이득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서만 알릴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제안한다(Nam et al., 2013). 유사하게 Good과 Mintz(1990)는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과 상담이나 정서적 표현의 이점에 대한 심리교육적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것,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정서적 표현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 때문에 심리적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며(Mahalik & Cournoyer, 2000), 국내 연구에서도(신연희, 안현의, 2005) 자기노출에 대한 위험기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부정 상관을 보였다. 또한 최성인과 김창대(2010)의 한국판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세 가지 부정적 요인을 파악했는데, 부정적 상담결과, 부정적 상담자 자질, 부정적인 사회규범이 하나의 부정적 차원으로 묶임을 발견했고, 이를 한국 대학생들이 상담자의 부정적 자질과 사회적 낙인을 상담의 부정적 결과의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지어진 사회적 낙인의 연속선상에서 상담자가 자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상담자로부터의 낙인)도 같은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예측하는 상담의 위험 혹은 부정적 결과, 그리고 상담자로부터의 낙인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관점이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남성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다(박준호, 서영석, 2009). 정서표현이 남성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는 남성들에게 감정에 초점을 두고 정서적 표현을 격려하는 방식의 개입은 높은 수준의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이들의 요구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이들의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 Wisch, Mahalik, Hayes와 Nutt(1995)의 연구에서 감정에 초점을 둔 회기를 지켜본 높은 성역할갈등을 지닌 남

성들은 심리적 도움추구 의도를 가장 적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어도 초반에는 감정을 덜 강조하여(de-emphasizing feelings) 남성 내담자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Good과 Wood(1995)도 정서적 표현에 초점을 덜 맞추고 도구적 변화(instrumental changes)에 더 초점을 두고, 전통적인 일대일 상담보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태의 개입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Nguyen과 동료들(2012)도 상담 초반에는 감정을 덜 강조하는 접근으로 시작하여, 치료관계가 형성된 후 감정에 접근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내담자의 능력을 키우고 정서와 취약성을 견디어 내며 이것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각하도록 돕도록 제안한다. 그리고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정립하도록 도전하며, 역량기반 접근(strength-based approach)을 하는 것이 이들의 성취지향 경향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제안한다. 치료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치료의 과정과 과제에 준비시키는 과정 또한 치료 참석률을 높이고 심리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 Good, 1997). 사회적 지지의 제공에 있어서도 여성성이 정서적 지지 추구하고 더 관련이 있는 반면 남성성은 실질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Reevy & Maslach, 2001) 남성은 문제초점적인 도구적 사회적 지지 유형이 더 적합할 수 있음을(Barbee et al., 1993) 치료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제한점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2/30대 남성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30대 남성 전반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군인 등 여러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균등하게 수집되지 않아 집단 간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참가자의 대다수가 대학생이고 편의표집방식으로 인해 그 결과를 해당 연령대 전반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한 표집을 시행하여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조망과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 등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 개념에 근거한 평가를 보완하여 두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과 양상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횡단연구 설계로 인해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성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검증하여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 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45-160.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태련 (1991). Gender roles in Korea.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03-117.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 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77-103.

박은옥 (2011). 성별에 따른 성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169-177.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서종환, 이창환, 김경일, 김성혜 (2012). 한국

-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23-344.
-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대학생의 자살 생각 영향요인. 스트레스 연구, 20(1), 41-50.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 유영란 (2005).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연민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70-83.
- 이동혁, 유성경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 -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선희 (1995). 성역할특성과 성별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최성인, 김창대 (2010). 상담에 대한 태도척도 한국판(K-BEACS) 타당화 연구: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평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1), 169-195.
- 최희철, 김지현 (2009). 남자 청소년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연민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253-280.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대학상담: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2(2), 559-576.
- 통계청 (2014). 2013년 사망원인통계연보(전국편). <http://kostat.go.kr>에서 2014, 10, 1 자료 얻음.
- Ashton, W. A., & Fuehrer, A. (1993). Effects of Gender and Gender Role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 and Type of Social Support Resource on Support Seeking. *Sex Roles*, 28(7-8), 461-476.
- Barbee, A. P., Cunningham, M. R., Winstead, B. A., Derlega, V. J., Gulley, M. R., Yankeelov, P. A., & Druen, P. B. (1993). Effects of Gender Role Expectations on the Social Support Pro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9(3), 175-190.
- Berger, J. M., Levant, R., McMillan, K. K., Kelleher, W., & Sellers, A. (2005). Impact of

- Gender Role Conflict, Traditional Masculinity Ideology, Alexithymia, and Age on Men's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Help Seeking.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1), 73-78.
- Blazina, C., & Watkins Jr., C. E. (1996).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Effects on college men's psychological well-being, chemical substance usage, and attitudes towards help-see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61-465.
- Cournoyer, R. J., & Mahalik, J. R. (1995). Cross-sectional study of gender role conflict examining college-aged and middl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11-19.
- Cutrona, C. E., & Russell, D. W. (1987).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stres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1(1), 37-67.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Fischer, A. R., & Good, G. E. (1997). Men and psychotherapy: An investigation of alexithymia, intimacy, and masculine gender rol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4(2), 160-170.
- Fisher, E. H., & Turner, J. 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Fitzpatrick, K. K., Euton, S. J., Jones, J. N., & Schmidt, N. B. (2005). Gender role,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7(1), 35-42.
- Fragoso, J. M., & Kashubeck, S. (2000). Machismo, gender role conflict, and mental health in Mexican American me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2), 87-97.
- Friedman, M. S., Koeske, G. F., Silvestre, A. J., Korr, W. S., & Sites, E. W. (2006). The impact of gender-role nonconforming behavior, bullying,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ity among gay male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5), 621-623.
- Good, G. E.,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ed Ris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17-21.
- Good, G. E., & Wood, P. K.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Help Seeking: Do College Men Face Double Jeopar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1), 70-75.
- Hill, W. G., & Donatelle, R. J. (2005). The impact of gender role conflict on multidimensional social support in older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4(3), 267-276.
- Hunt, K., Sweeting, H., Keoghan, M., & Platt, S. (2006). Sex, gender role orientation, gender role attitudes and suicidal thoughts in three generation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8), 641-647.
- Kaniasty, K., & Norris, F. H. (2000).

- Help-Seeking Comfort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The Role of Ethnicity and Context of Nee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545-581.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1), 1-27.
- Mahalik, J. R., & Cournoyer, R. J. (2000). Identifying gender role conflict messages that distinguish mildly depressed from nondepressed me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2), 109-115.
- McCarthy, J., & Holliday, E. L. (2004). Help-Seeking and Counseling Within a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 Examination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1), 25-30.
- Möller-Leimkühler, A. M. (2002). Barriers to help-seeking by men: a review of sociocultural and clinical literatur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1-3), 1-9.
- Möller-Leimkühler, A. M. (2003). The gender gap in suicide and premature death or: why are men so vulnerabl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3(1), 1-8.
- Nam, S. K., Choi, S. I., Lee, J. H., Lee, M. K., Kim, A. R., & Lee, S. M. (2013). Psychological factor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4(1), 37-45.
- Nguyen, C. M., Liu, W. M., Hernandez, J. O., & Stinson, R. (2012). Problem-solving appraisal, gender role conflict, help-seek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en who are homel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3(3), 270-282.
- Oliver, M. I., Pearson, N., Coe, N., & Gunnell, D. (2005). Help-seeking behaviour in men and women with common mental health problems: cross-sectional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4), 297-301.
- O'Neil, J. M. (1981). Male sex-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1.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5-6), 335-350.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 Reevy, G. M., & Maslach, C. (2001). Use of Social Support: Gender and Personality Differences. *Sex Roles*, 44(7-8), 437-459.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23-330.
- Shepard, D. S. (2002). A negative state of mind: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en with high gender role conflict.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3*(1), 3-8.
- Tsan, J. Y., Day, S. X., Schwartz, J. P., & Kimbrel, N. A. (2011). Restrictive emotionality, BIS, BAS, and psychological help-seeking behavior.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2*, 260-274.
- Vogel, D. L., & Pederson, E.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47-357.
- Vogel, D. L., Wester, S. R., & Larson, L. M. (2007). Avoidance of counseling: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hibit seeking hel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4), 410-422.
- Wester, S. R., Christianson, H. F., Vogel, D. L., & Wei, M. (2007).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8*(4), 215-224.
- Wester, S. R., Kuo, B. C. H., & Vogel, D. L. (2006). Multicultural Coping: Chinese Canadian Adolescents,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7*(2), 83-100.
- Wisch, A. E., Mahalik, J. R., Hayes, J. A., & Nutt, E. A. (1995). The impact of gender role conflict and counseling technique on psychological help seeking in men. *Sex Roles, 33*(1-2), 77-89.
- Wong, Y. J., & Rochlen, A. B. (2009). Potential benefits of expressive writing for male college students with varying degree of restrictive emotionalit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0*(2), 149-159.
-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 (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3-338.
- 원 고 접 수 일 : 2015. 2. 26
수정원고접수일 : 2015. 4. 16
게 재 결 정 일 : 2015. 8. 18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Young men: The Mediating Role of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Yeon-Hwa J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un-Jung Shim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Gender Role Conflict(MGRC) and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young men in their 20's and 30's. 392 men from the Daegu and Gyeongbuk area completed the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CES-D, Social Provision Scale and the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MGRC was associated with higher depression, negative help seeking attitude and a lower level of perceived support.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GRC and depression. Also, higher levels of MGRC were associated with negative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 which affected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men's negative perception toward help seek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order to mitigate the impact of male gender role conflict in depression.

Key words :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Perceive Social Support